

2011 총회 스케줄

8월 26일 (Friday)

03:00 pm - 11:30 pm ; Welcome / Registration
05:15 pm - 06:45 pm ; Reception for Chorus /orchestra/soloists at CIM
07:00 pm - Rehearsal for Soloists/Chorus/Orchestra at CIM
08:00 pm - 09:30 pm ; 임원 회의 (conference room 1)
각 지역 회장 (당연직 부회장), 역대 회장
총동창회장단, 북미주 동창회 실행위원,
동기별 모임
** 07:00 pm -

8월 27일 (Saturday)

07:00 am - 08:00 am ; Breakfast
09:00 am - 10:30 am ; Lecture Series (conference room 1)
Leslie Cho, M.D., Cleveland Clinic 과장; 심장 질환 예방
고혜령 박사 (이화여고 총동창회 부회장); 이화여고 역사와 인물
송보경 박사 (총동창회 회장); 이화와 한국의 소비자운동
11:00 am - 01:00 pm ; 교장 선생님, 총동창회 회장님과 Luncheon (Salon 4)
02:00 pm - 04:45 pm ; Tour of University Circle,
Visit Cleveland Museum of Art for Special Exhibition :
The Lure of Painted Poetry, Japanese & Korean Art, Lecture at 2:30pm
Lecturer: Ms. Katie Kilroy (curatorial assistant), Tour with a Docent: 서경희
05:30 pm - 07:00 pm ; Dinner at Miga, buffet dinner
08:00 pm - 09:45 pm ; Ewha's 125th anniversary Concert at CIM
10:15 pm - Return to Hotel
11:00 pm - 01:00 am ; Slumber Party with post concert Ewha spirit (conference room 2)

8월 28일 (Sunday)

07:00 am - 08:00 am ; Breakfast
08:10 am - 09:30 am ; 총회 (Salon 4)
10:00 am - 11:00 am ; Leave to Ravenna, Ohio (Mrs. Baldwin's Hometown)
11:00 am - 12:10 pm ; Worship at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of Ravenna
12:40 pm - 01:50 pm ; Lunch at Fun Buffet
02:10 pm - 04:10 pm ; Visit to Mrs. Baldwin's Cemetery, House and Streetsboro Heritage Society
04:10 pm - 05:00 pm ; Return to Cleveland
06:00 pm - 07:00 pm ; Reception in the Lobby
07:00 pm - Banquet (Salon 3 & 4)

8월 29일 (Monday)

07:00 am - 08:00 am ; Breakfast
08:00 am - 09:00 am ; wrap up session / 총회 종료(conference room 1)
09:00 am - 폐회
09:45 am - Ewha Heritage Tour Begins...

See you all again in 2013 ...

EWHA

이화여자고등학교

제4차 북미주동창회 총회

주제: 감사 - 소망 - 나눔

AUGUST 27-29 2011
CLEVELAND OHIO

EMBASSY SUITES HOTEL CLEVELAND





자유, 사랑, 평화

학교 이름의 유래

"고종 황제께서 배꽃처럼 희어서 맑고 깨끗하라는 뜻으로 **梨花**라는 교명을 내리시다"

교가

1. 한줄기 새 빛이 동방에 비치니 무궁화 동산에 첫봄이 왔도다. 고목에 짝 돌아 꽃이 - 피오니 성인이 이름해 이화라 하셨네.
2. 세뿔메 큰바위 우리의 지개요. 한가람 긴 흐름 우리의 바람이요. 반석에 터 닦고 잘 세운 우리집. 비바람 닦쳐도 겁낼 것 없도다.
3. 삼위신 우리 님 스승이 되시니 여기서 길린 자 새 생명 얻도다. 튼튼한 몸으로 지덕을 겸하여 약한 이 힘되고 어둠의 빛되자.

<후렴> 아 - 이화 이화 - 아름다운 이름 - 함께 노래하자. 아 - 이화 이화 -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학교의 기독교 교육방침

기독교적 신앙과 교양을 기르고 기독교적 인생관을 인류 최고의 이상으로 삼게한다.

1.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땅 위에 평화가 임하도록 한다.
2. 생각과 행동의 규범을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표준 삼는다.
3.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기르며 기독교적 생활을 실천하도록 한다.
4.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학원을 만들고 이를 연장 확대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하도록 지도한다.

졸업생 (59,870명: 1886~2010년)

1. 1886 ~ 1918 (학당시절과 구학제) : 약 1,000명
2. 1919 ~ 1946 (4년제 고녀) : 2,008명
3. 1947 ~ 1951 (6년제 여중) : 695명
4. 1952 ~ 1971 (3년제 여중) : 10,562명
5. 1952 ~ 2009 : 45,107명
6. 2010 학년도 : 435명

학교 연혁

- 1886: 5월 31일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톤 여사(Mrs. Mary F. Scranton)에 의해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창립.
- 1887: 고종황제께서 '이화학당'이란 교명을 하사.
- 1890: 미스 로드와일러(Miss Louisa Rothweiler) 학당장에 취임.
- 1893: 미스 페인(Miss Josephine O. Paine) 학당장에 취임.
- 1900: 메인홀(Main Hall, 구 교사와 기숙사 및 강당) 준공.
- 1904: 4년제 중학교 설치.
- 1907: 미스 프라이(Miss Lulu E. Frey) 학당장에 취임.
- 1915: 심슨기념관(Simpson Hall) 준공.
- 1921: 미스 월터(Miss A. Jeanette Walter) 학당장에 취임.
- 1922: 미스 아펜젤러(Miss Alice R. Appenzeller) 학당장에 취임.
- 1923: 프라이기념관(Frey Hall) 준공.
- 1929: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와 이화여자보통학교의 행정을 분리하고 미스 처치(Miss E. Church) 교장에 취임.
- 1935: 이화여자보통학교를 폐지하고 전문학교(현, 이화여대)를 대한동 신촌교사로 이전.
- 1938: 신봉조 교장 취임. 미스 처치 명예교장으로 추대.
- 1946: 4년제 여자고등학교를 6년제 여자중학교로 학제 개편.
- 1950: 4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를 병설하고 다시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로 개편. 6.25로 메인홀 소실.
- 1951: 부산 영도에 가교사를 설치하고 수업 재개.
- 1953: 서울로 환도하여 완전 복교. 이화예술고등학교 신설.
- 1954: 교지 '거울' 창간.
- 1955: 대천 해양 훈련장 개설. 순화동 1번지 대지 구입, 교지 확장.
- 1956: 석조 노천극장 준공.
- 1958: 스크랜톤 기념관 준공. 재단법인 유학학원을 이화학원으로 개칭.
- 1961: 신봉조 교장 정년퇴임. 서명학 교장 취임.
- 1963: 신봉조 전 교장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장에 취임.
- 1964: 중학교 30학급 고등학교 27학급 인가.
- 1968: 문교부 지시에 의하여 1968학년도 재학생의 최종 졸업연도인 1971년 중학교가 폐지되고 고등학교가 각 학년 20학급씩 총 60학급인가
- 1970: 본관 신축교사 준공(현재의 화암 신봉조관)
- 1971: 서명학 교장 정년퇴임. 정희경 교장 취임.
- 1974: 유관순기념관 준공.
- 1975: 프라이기념관 화재로 소실.
- 1976: '이화 90년사' 간행.
- 1982: 정희경 교장 퇴임. 심치선 교장 취임.
- 1986: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거행. 전인항 동창 기념 도서관 준공. '한국 여성 신교육의 발상지' 기념비 건립.
- 1988: 학교법인 이화학원에서 예원학교 및 서울예술고등학교 분리.
- 1989: 신봉조 이사장 퇴임. 강병훈 목사 이사장 취임.
- 1990: 싱가포르 Anglo-Chinese Junior College와 자매결연.
- 1992: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신설.
- 1992: 고등학교 학급이 각 학년 10학급씩 총 30학급으로 인가.
- 1994: '이화 100년사' 간행. 호주 스트래스코나여고(Strathcona Baptist Girls' Grammar School)와 자매결연.
- 1995: 심치선 교장 정년퇴임. 최종옥 교장 취임.
- 1996: 고등학교 학급이 각 학년 12학급씩 총 36학급으로 인가.
- 1996: 창립 110주년 기념행사 거행. 설립자 스크랜톤 여사와 신봉조 명예 이사장의 흉상 건립.
- 1999: 이화 옛 정문 복원.
- 2000: 최종옥 교장 정년퇴임. 정창용 교장 취임.
- 2003: 일본 야마나시 에이와여고(Yamanashi Eiwa Senior High School)와 자매결연.
- 2004: 이화100주년기념관 준공.
- 2005: 강병훈 이사장 퇴임. 조영준 목사 이사장 취임.
- 2006: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 거행. 이화박물관 개관. 유관순열사 동상 건립.
- 2007: 이화체육관 준공.
- 2008: 조영준 이사장 퇴임. 김고광 목사 이사장 취임.
- 2009: 정창용 교장 퇴임. 강순자 교장 취임.
- 2010: 자율형 사립고 인가로 1학년 신입생 입학 기숙사 건축 설계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장
김정진 (66)

저희가 북미주 동창회 제 4차 회장단을 맡은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나고 벌써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결같이 모교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주신 모든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쉽지 않은 먼길 오신 강순자 교장 선생님, 정창용 전 교장 선생님, 송보경 총동창회 회장님, 고혜령 부회장님, 이자형 부회장님, 그리고 한국 이화 연합 합창단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북미주 동창회를 위하여 열심히 도와주신 각지부 회장님들(당연직 부회장님들)과 지난 일년 8개월동안 아무 불평없이 서슴치 않고 총회를 준비해주신 제4차 실행 임원님들께 가슴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이번 이화 창립 125주년/동창회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온갖 정성과 열정을 쏟아주신 윤현주 교수님을 비롯하여 미국 이화 연합합창 단원님들과 음악인들께 커다란 박수와 감사의 꽃다발을 드립니다.

우리 이화인은 두서너명만 모이면 우리자신을 서슴치 않고 배꽃이라 부릅니다. 오늘도120여명 이상의 배꽃들이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에 한맘으로 모였습니다. 정말로 보기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북미주에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이렇게 크고 멋지게 만나는 경우는 이화여고 하나뿐이라 합니다. 이화만이 할수 있는 일이지요.

2011년은 여성교육의 첫 선구자로 한국 여성사를 개척해 온 이화 여고의 창립 125주년, 동창회 설립 100주년, 이화장학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해로써 북미주 제4차 총회가 이화 역사의 발생지인 클리브랜드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감사, 소망, 나눔입니다. 스크랜튼여사와 발드윈여사를 기억하며 125년전 그 어려웠던 조선 말 시대에 이화가 세워질수 있었던 기적에 “감사”하고, 저희 모교가 새로운 자율형 사립고로 재생의 기회를 받아 미래를 향하여 재도약해 갈수 있는 기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끝없는 은혜를 어려운 후배들과 “나눔”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역사적인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협력으로 이화장학재단 장학금 모금운동, \$88 for Ewha Campaign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벌써 목적 금액인 십만불을 7개월안에 돌파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화의 true giving spirit이 아니겠어요. 모두, 멋진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교를 사랑 하는 맘에 다시 감동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이화의 발전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오니, 이화장학재단 100억원 모금이 달성할 때까지 계속 정성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동문님들의 많은 협조로 북미주 동창회 주소록이 이번 10월에 북미주 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을 뵈울 예정이며, 아직도 변경된 주소와 새 동문님들의 정보를 받고 있으니, 아시는 동문분이 계시면 저희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꽃은 하나로는 그냥 조그마한 꽃입니다. 그러나 배꽃이 여러 송이로 뭉쳐 함께 만발 할때, 그 아름다움과 화사함은 누구도 못 따라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이번 제 4차 총회, 2박 3일의 스케줄을 저희 나름대로 동문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획하였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더라도 넓은 맘으로 양해해주시고, 오랫동안 만난 선 후배 그리고 동기분들과 함께 배꽃 동산의 옛 소녀 시절로 돌아가셔서 마음껏 이화의 우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 고등학교 교장
강순자 (62)

북미주 동창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이화는 지난 5월 30일 동창님들과 내외 귀빈, 1300여명의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대한 창립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화창한 5월의 신록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는 재학생들의 싱그러움이 합해져 125살의 이화는 해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듯합니다.

올해 창립기념행사는 졸업 60주년을 맞이하신 대선배님으로부터 30주년에 이르기까지 '51년, '61년, '71년 '81년도 졸업 동창들의 Home Coming 해로서 이화 동산에서 아름다웠던 10대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신 '61년 졸업동기회에서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동창 80여분이 가족과 함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더 없이 뜻 깊은 자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대한민국과 우리 이화를 빛내고 계신 동창님들의 열렬한 모교 사랑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교를 방문해주시는 동창님들께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장학 기금을 모아 100억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화장학재단에 기부해주셔서 물심양면으로 이화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처에서 동창님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패션디자이너 이광희 동창(70졸업)께서는 모교 신입생들의 새로운 교복 디자인을 위한 재능기부를 기꺼이 해주셔서 2011년 새로운 교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교의 교장으로서 우리 어린 이화인들을 최고로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수많은 동창님들의 헌신에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특히 북미주 동창님들께서 모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88 for Ewha Campaign을 하셔서 장학금 십만불 모금을 이화장학재단에 기부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북미주 동창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이곳 모교의 학생, 교직원들은 큰 감동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느끼며 매일 8,9시간 계속되는 학업과 자기주도적인 자율학습으로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과 탐구활동,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적극성을 잃지 않고 참여합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체육대회로 지난 5월 27일은 함성 소리가 운동장을 들썩이게 하였으며 선생님, 선후배, 친구가 하나 되어 이화공동체로서 Fighting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학기 성취를 평가하는 1학기말 고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무실 앞 복도에는 선생님께 질문하고자 모여든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이화의 교사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알고자하는 학생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십니다. 곧 방학이 시작되면 부족한 교과목의 심화학습을 위한 방과 후 특별 수업이 시작되며 이화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과학캠프, 토론캠프로부터 농촌봉사활동 등 social activity에 이르기까지 이화는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여성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미주 동창님들의 이화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기도는 이화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서울 정동 배꽃 동산에서 보내드린 이 소식이 가슴 축축이 상쾌하게 해드렸기를 바라며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고 동창회장
송 보 경 (63)

2011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되는 북미주 동창회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북미주 동창들은 기회의 땅, 멋진 신세계로 불리는 북미주에서 더 큰 꿈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해와 달 아래 똑같은 주름을 만들고 산다는 것이라네’
라는 시인의 노래처럼,
지구 어느 곳에 살건 우리는
‘아 이화 이화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를 노래합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화를 세우신 스크랜튼 여사를 보내준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화가 낸 최초의 선배 김점동(박에스더)을 교육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점동 선배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배운 것을 사회에 가감 없이 환원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 선배의 삶은 열정, 헌신이었습니다.

그 선배로 비롯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의 추구, 인간에 대한 헌신은 우리 이화의 자랑이면서 우리 이화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정신과 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 졸업생은 북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가 가진 나름대로의 재능을 기쁘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화의 자긍심입니다.

2011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기쁨과 나눔 음악회」는 뜻 깊은 만남, 반가운 만남, 자랑스러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클리블랜드에서 다시 만나
‘아 이화 이화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를 또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쁘고 자랑스러운 보고는 우리 이화가 만든 이화장학재단이 62억 원을 모금하였다는 것입니다.(6월말 현재) 100억 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후배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되는 북미주 총회에서 곧 뵈기를 바랍니다. 또 그곳에서 만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총회 준비위원장
신 공 범 (70)

모교 125주년, 동창회100주년 기념 축제를 클리블랜드에서

이화동문 여러분을 이화역사의 산지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모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이화인으로서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기쁨과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실행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리 이화는 명실 상부 여성교육의 최초이자 최고의 학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특히 북미주동창회도 이 명성을 지키고 빛내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2011년 총회를 통해 이화

와 인연이 깊은 역사적 발자취의 발견, 동문간의 우정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한 헌신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성장하는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모교 발전을 위해 이화인의 힘을 모으는데도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동문들과의 만남의 날을 기뻐하며...



2011 북미주 동창회 서기
김 영 희 (67)

이화여고 창립 125주년, 동창회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북미주 동창회 제4차 총회를 이곳,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장님과 함께 실행위원들이 모두 열심으로 총회를 위해 뛰었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선후배님들의 넓은신 아량으로 덮어주시리라 믿으며 모두가 다같이 기쁨으로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미주 동창회가 계속 발전하여 우리 이화가 세계로 뻗어가는 발판이 될 수있기를 바라며, 모교의 발전에도 한 몫을 담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미주 동창회 총무
여 경 희 (76)

“북미주 동창회와 함께 한 아름다운 시간들”

클리블랜드 지회가 북미주 동창회를 맡아 실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일하여 온지도 어느새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정말로 실감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시간들 중에서 가장 바쁘고 보람되게 보냈던 시간들이었으며, 오십이 훌쩍 넘은 나이에 무엇인가에 그것도 나의 모교인 이화를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의 대동지인 이곳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제 4차 총회와 음악회가 의미있고 감명깊은 우리 배꽃들의 향연이자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멋진 이화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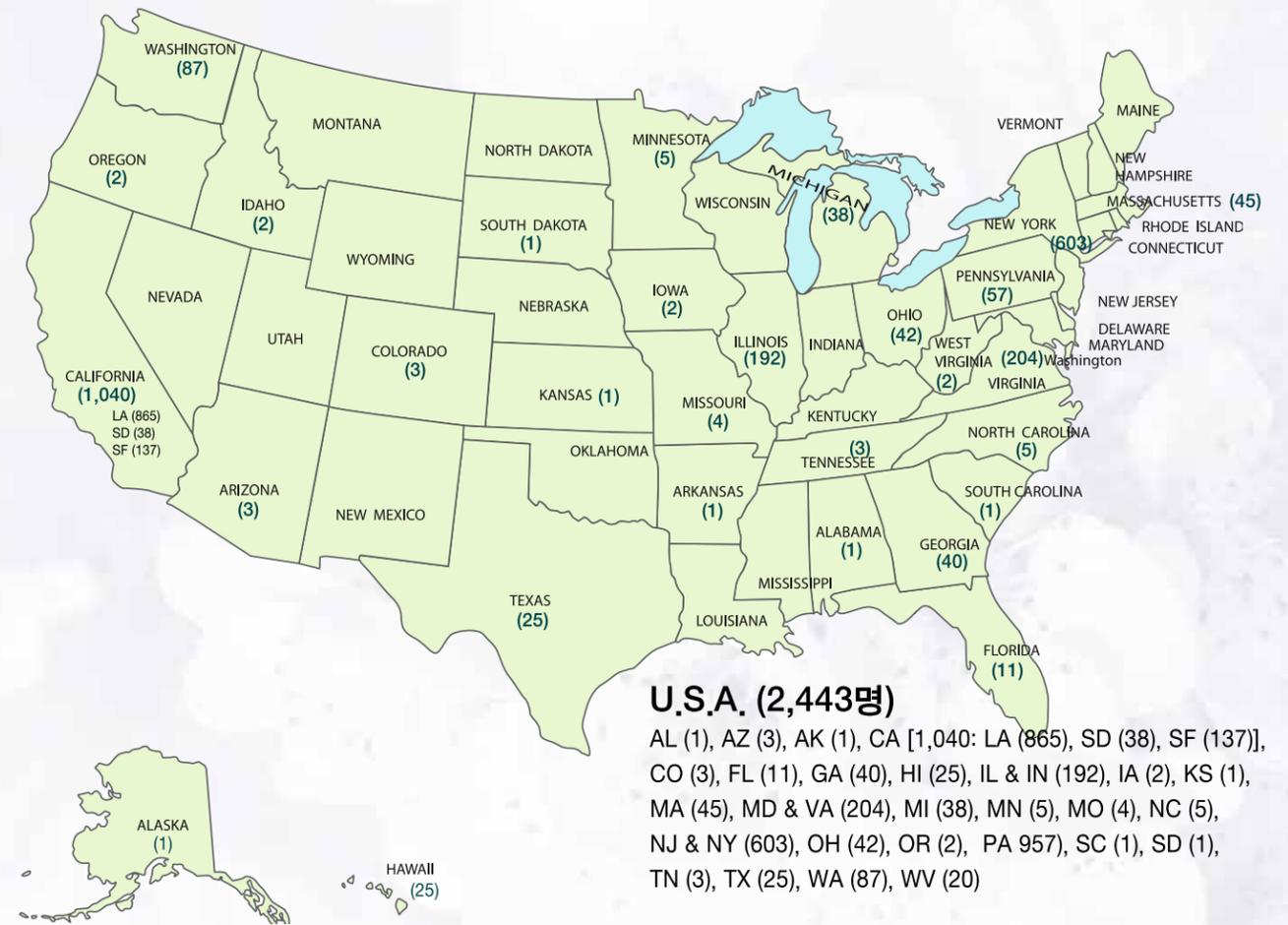
모든 선후배님들의 클리블랜드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화여고 동창회 연혁

- 1911.6.16 제4회 중등과 졸업식에서 동창회 결성
- 1952.3.25 부산시 영도 이화여자고등학교 가교사에서 정기총회 회장 김정옥
- 1955.5.31 스크랜턴 교장 홍상제막 모교에 기증
- 1956.5.30 창립 70주년 기념 노천극장 건립비 전달
- 1959.5.30 4대 동창회장 채선엽(27년) 선출
- 1962. 류관순동창 고향 천안읍 지령리마을과 자매결연
- 1968.12. 예멜합창단 창단
- 1970 류관순기념관에 그랜드피아노 기증
- 1970.12. 전체동창 첫 성탄축하 모임 개최
- 류관순기념관 건립기금 모금 결의
- 1971. 5. '이화를 빛낸 동창' 상 제정
- 1973. 2. 전남 광주, 전북 전주 지회 발족
- 1973. 5. 창립기념일 첫 바자회 개최
- 1974.5.30 생활관련법 위한 바자 개최
- 1975. 5. 프라이홀 소실에 따른 모금, 모교에 전달
- 1975. 6. 5대 동창회장 심치선(48년) 선출
- 1977. 2. 부산지회 발족
- 1977.12. 동창회명부 및 수첩, 동창회보 창간
- 1978.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전달
- 1980.11.22 이화음악회 시작 (류관순 기념관)
- 1982.6.22 6대 동창회장 이복희(37년) 선출
- 1986. 창립100주년 기념 백주년기념관 건립 기금 전달
- 1987-1994 7대 동창회장 안현화(52년) 선출
- 1989.10. 제1회 동창회장배 교사 테니스대회 개최
- 1993 제1회 동창합창단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공연
- 1994 -2000 8대 동창회장 이해성(56년) 선출
- 1996. 창립110주년 기념음악회겸 제2회 동창합창단 음악회, 예술의전당 류관순기념 매봉교회 증축 및 재건립 기금전달
- 1997-1999 류관순기념관 의자 1,764석 교체 기금 3억원 전달
- 1998. 1. 이희호(40년)동창 영부인 축하예배
- 1999.10. 자유. 사랑. 평화 - 새천년 큰물결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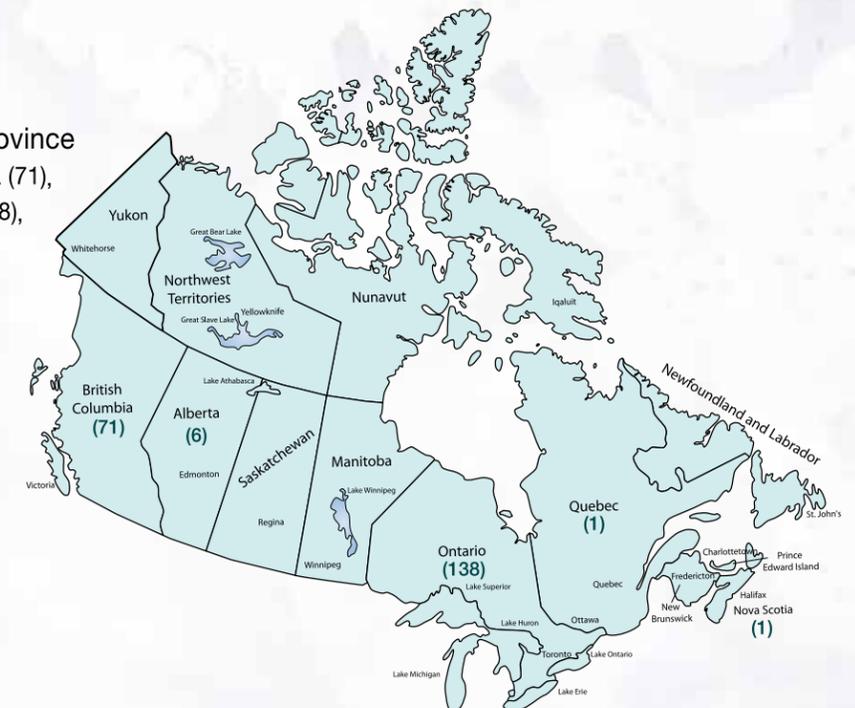
- 2000. 4. 9대 동창회장 김숙희(56년) 선출
- 2002. 6. 제4회 동창합창단 미국 뉴욕링컨센터 공연
- 2004. 5. 제5회 동창합창단 세종문화회관 공연
- 2004.10. 북미주지회 창립총회, 회장 한영숙(56년,LA) 선출
- 2006. 5. 제6회 동창합창단 미국 LA, 애너하임 공연
- 류관순 열사 동상 제막
- 2006.10 제2회 북미주지회 총회, 2대 회장 김광자(62년, 워싱턴 디시) 선출
- 2007. 1. 10대 동창회장 장명수(60년) 선출
- 2007. 6. 동창합창단 미국 오하이오 공연
- 2008-2009 제3회 북미주지회 3대 회장 김수자(61년, 뉴욕) 선출
- 2009. 3. 제3차 북미주지회 총회, 스크랜턴서거 - 100주년기념음악회. 미국 뉴욕 링컨센터
- 2009.11. 스크랜턴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 류관순 기념관
- 2010-2011 제4회 북미주지회 4대 회장 김정진(66년, 클리블랜드) 선출
- 2010. 6. 북미주지회 뉴스레터-배꽃향기 창간호 발간
- 2010. 9. 이화장학재단 설립
- 2010.12. 11대 동창회장 송보경(63년) 선출
- 2011. 2. 동창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조직
- 2011. 3. 북미주지회뉴스레터-배꽃향기2호 발간
- 2011.5.30 이화여자고등학교 창립125년, 동창회창립100년, 장학재단 출범
- 기쁨과 나눔 특별바자
- 2011.5.30 북미주동창회 장학금모금 10만불 약정 - 모교에 전달
- 2011.6.1. 이화여자고등학교 창립125년, 동창회창립100년, 장학재단 출범
- 기쁨과 나눔 음악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1.8.27 제4차 북미주지회 총회 및 이화여자고등학교 125년,동창회100년 기념음악회 -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 2011.10. 이화여자고등학교 창립125년, 동창회100년, 장학재단 출범
- 기쁨과 나눔 전시회 예정, 심슨홀
- 2011.10 북미주동창회 주소록 발간 예정

북미주 동창회원 지역 분포도



CANADA (217명)-Province

Alberta (6), British Columbia (71), Nova Scotia (1), Ontario (138), Quebec (1)



제 4차 북미주 동창회 총회 강의 Series

2011년 8월 27일(토) 오전 9시-10시 30분 (Conference room 1)

Moderator; 김현진 (76) 실행임원

- 09:00 - 09:23 am; Leslie Cho, M.D. : 심장질환 예방 (prevention of heart disease)
- 09:23 - 09:30 am; Q & A
- 09:30 - 09:53 am; 고헤령 박사 (이화여고 역사와 인물)
- 09:53 - 10:00 am; Q & A
- 10:00 - 10:23 am; 송보경 박사 (제목: 이화와 한국의 소비자운동)
- 10:23 - 10:30 am; Q & A

교장 선생님, 총회장님과 점심을 함께...

2011년 8월 27일 (토) 오전 11시 (Salon 4)

사회: 김영진 (67) 실행임원

- | | |
|--------------------------------|----------|
| 1. 환영인사 | 김정진 회장 |
| 2.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 학교 발전 기획과 보고 | 강순자 교장 |
| 3. 총동창회 송보경 회장님 인사 말씀 / 동창회 보고 | 송보경 회장 |
| 4. 이화장학재단 발족과 100억원 모금 운동 보고 | 정창용 상임이사 |
| 5. From the floor | |
| 6. 폐회 | |

제 4차 북미주 동창회 총회 종료

2011년 8월 29일 (월) 오전 8시 - 9시 (Conference Room 1)

사회: 김영희 (67) 실행임원

- | | |
|-----------------|--------|
| Wrap up session | 김정진 회장 |
| 폐회 기도 | 김영희 서기 |

Speaker Profile



송보경 박사 (63)

학력 : 서울여대 사회학과 학사
필리핀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필리핀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경력 : 서울여대 교수 (비름교육부)
서울여대 명예교수
한국소비자보호원 비상임 이사
에너지관리공단 비상임이사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이사장
월간 소비자리포트 대표
국민권익위원회 명예권익위원
기술표준원 생활표준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상훈 : 제8회 유관순상 수상
국민포장 (환경보호)
산업포장 (에너지 절약)
국민훈장 동백장 (반부패활동)



고혜령 박사 (64)

학력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졸업
경력 :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 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현: (학) 이화학원 이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
한국고전번역원 이사
저서 : 고려후기 성리학의 수용과
稼亭 (가정) 李穀 (이곡)
상훈 : 일조각, 2001

Dr. 윤순영



- * University of Michigan 졸업- 불문학 학사 & 인류학 박사
- * Social Development officer for UNICEF in Southeast Asia Office
- * Social Scientist at WHO/SEARO in New Delhi
- * Former Columnist for the Earth Times Newspaper
- * UN representative for 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 * Incoming Chair of the NGO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NY
- * board Member of the global Advisory Council at Harvard AIDS Initiative
- *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
- * consultant for the WHO Tobacco Free Initiative
- * co-editor with Dr. Jonathan Samet of the WHO report, "Gender, Women, and the Tobacco Epidemic."

Leslie Cho, M.D.



Dr. Cho의 특별 관심 분야중의 하나가 여성들의 심장 질환과 많은 연관이 있는 콜레스테롤과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들과의 역할 및 관계등의 연구입니다.

- * Director of Cleveland Clinic's Women's Cardiovascular Center - since 2005
- Section Head of Preventive Cardiology & Rehabilitation at Cleveland clinic
- * Assistant Professor of Medicine at Loyola University Medical Center - 2002~ 2005
- * Honors - National Peripheral Disease Committe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 Fellow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 Member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 *Award - Fellow of Cardiovascular Epidemiology & Prevention in 1999
- American Heart Association's Women in Cardiology Award in 1998
- John Humphrey Award (Most outstanding Internal Medicine resident) in 1999
- *Medical School -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of Medicine
- *Undergraduate - graduated from UCLA, Los Angeles, CA

제 4차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총회

2011년 8월 28일 (일) 오전 8시10분-9시 30분 (Salon 4)

사회: 여경희 총무

1. 개회 선언 김정진 회장
2. 기도 김혜선 목사
3. 제 3차 총회 회의록/재정 결산 보고 김수자 제 3차 회장
4. 각 지역 보고 각 지역 회장
5. 4차 북미주 동창회 활동 보고 김정진 회장
 - 이화장학재단 100억원 모금 운동, \$88 for Ewha Campaign 김영진 위원장
 - 북미주 동창회 주소록 제작 보고 김영희 서기
 - 배꽃향기 발간 보고 여경희 총무
 - 중간회계보고 김현진 회계
 - 총회 준비 과정 보고 신공범 위원장
6. Scranton Fund 보고 김혜선 목사 / 김수자 위원장
7. 8/26/11의 임원회 보고 김정진 회장
8. 제 5차 회장단 인준 김정진 회장
9. 제 5차 회장단 인사 5대 회장
10. From the floor
11. 폐회

제 4차 북미주 동창회 만찬 순서

사회: 신공범(70) 총회준비 위원장
박연욱 M.D.(이화 사위)

- 개회기도 / Invocation 김혜선 (73) 목사
환영사 김정진 (66) 회장
축사 강순자 (62) 교장
인사 말씀 송보경 (64) 회장
\$88 for Ewha Campaign, 장학금 전달식 김영진 (67) 위원장
Keynote Address *Women's Education, Peace & Security* 윤순영 박사

DINNER

배꽃 공로상 수여 김정진 (66) 회장

김수자 (3대 회장) / 윤현주 교수 (음악회 총 감독)

Atlanta:	이석영 (59)	New York:	이보영 (52), 한명숙 (46)
New England:	박기춘 (58)	Philadelphia:	이정화 (52)
Chicago:	김정희 (56)	San Diego:	강재경 (63)
Cleveland:	한순남 (52)	San Fransisco:	최길자 (60)
Texas(Dallas):	이주연 (53)	Seattle:	곽노현 (55)
Hawaii:	옥 성숙 (50)	Washinton D/C:	김광자 (62)
남가주:	한영숙 (56), 최한희(64)	Toronto:	김지인 (54)
Michigan:	김정희 (54)	Vancouver:	김영휘 (54)

귀빈과 손님 소개

- 제 5대 회장단 소개 / 인사 및 환영 동영상 김정진 회장
모교 이화 근황 동영상 강순자 교장
촛불 점화 다같이
교가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김정식 목사

여흥 사회: 김혜경 (63) 회장

장기 자랑:

Dance & Music 김진경 (75) 위원장

이화장학재단 장학금 모금운동 (\$88 for Ewha Campaign)



\$88-for-Ewha Campaign
위원장 김영진 (67)

“\$88-for-Ewha Scholarship Campaign”은 이화 창립 125주년을 맞아, 2,800여명의 북미주 동창들을 대상으로, 배꽃 향기 제 1호 Newsletter를 통해 2010년 6월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화여고가 2010년이후 자율형 사립고로서, 제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처음에는 ‘겨우 \$88씩 과연 얼마나 모을수 있겠는가’ 하는 기우도 있었으나, \$88의 취지는 첫째, 이화가 128년 전 이곳 클리블랜드 교외, Ravenna에 살고 있던 Baldwin 여사가 \$88 (현 식가로 약 5만불 내지 6만불)을 조선 여성 교육을 위해 미 감리교 여성교회에 보냄으로서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는 될수 있는 대로 많은 동문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다.

Campaign이 시작 된지 1주도 안되어 제 1호로 장학금을 보내온 분은 67년 N.Y 어혜숙 동문이었다. 이어서 하와이주부에 있는 동문들 21명 전원이 참여하여 보내 주어 초기에 우리 임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65년 동문들은 졸업 45주년 Reunion으로 멕시코 크루즈 선상에서 44명 전원이 모금하여 보내 주었고, 57년 동문회는 자체 내에서 Campaign을 벌여 52명이 함께 모아 보내 주었다. 가장 많은 동문이 참여한 기수는 67년으로서 총 62명이 보내 왔고, 김진진 북미주 총회장의 동기인 66년 동문들은 지금도 계속하여 보내오고 있다. 최고참 동문으로는 D.C에 계신 37년 윤순자 동문이었다. 그외, 세 이화 자매가 함께 보내 준 것, \$8,888.88을 보내온 동문들 등이 특기 할만 하겠다. 심지어는 졸업생이 아닌 이화 친구들도 참여, 각 17개 지역 동창회에서 총 466명(8/1/11현재)이 참가, 우리가 세웠던 목표액 10만 불을 초과하게 된것을 감사드린다.

이 Campaign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임원들은 Ewha 의 125년 역사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눅6:38)’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교육을 받은 이화 동문들의 감사와 나눔의 spirit을 보면서, 이 tradition이 이곳 북미주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동문들과 이화 친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화장학재단 장학금 모금운동 (\$88 for Ewha Campaign) 기부자 명단 (8. 7. 2011)

총합계: **\$120,931.76** (\$120,231.76) 총참가 인원수: 467명 이상

Class of 1957 [Total : \$6,146.00 (52명)]

\$88 ~ \$500 : 고경자(\$88), 김미희(\$88), 김선숙(\$100), 김영숙(\$88), 김영신(\$200), 김윤자(\$88), 김현희(\$200), 김혜련(\$100), 김희경(\$200), 노명숙(\$88), 민정홍(\$100), 박은옥(\$88), 배점순(\$200), 손숙자(\$100), 서정벽(\$88), 신선미(\$200), 안교숙(\$100), 오세숙(\$100), 오인순(\$88), 유명희(\$100), 유희산(\$100), 윤연순(\$100), 윤정나(\$100), 윤훈(\$100), 이명자(\$200), 이병희(\$100), 이선애(\$100), 이양훈(\$100), 이은경(\$100), 이종례(\$100), 이행근(\$200), 이후근(\$100), 장대옥(\$88), 장명숙(\$100), 장정자(\$100), 장정희(\$100), 정수혜(\$100), 정정순(\$100), 조경숙(\$100), 주영숙(\$90), 주영희(\$100), 주운침(\$88), 주정희(\$88), 차준아(\$100), 최혜자(\$100), 한영숙(\$88), 한영숙(작은,\$100), 한충남(\$100), 한혜숙(\$100), 홍신희(\$100), 황영애(\$100),
\$500~\$999 : 김경애(\$500)

Class of 1965 [Total : \$4,400.00 (44명)]

\$100 : 강소희, 권영희, 김성애, 김성자, 김숙자, 김순애, 김영주, 김영호, 김은자, 김은주, 김재기, 김정미, 김혜경, 박광중, 박명희, 박영희, 손형욱, 송혜경, 오영옥, 우인숙, 이경희, 이균형, 이덕경, 이병현, 이순남, 이열의, 이옥린, 이옥순, 이원형, 이정란, 이정일, 장명희, 장혜선, 전서경, 전애린, 정순정, 조선희, 조영애, 조용미, 최경신, 한경희, 한현숙, 허임자, 홍태기
***65년 동기는 멕시코 크루즈 45주년 재상봉에서 모교 자율형 사립고를 축하하며 장학금을 증정

Atlanta Chapter [Total: \$1,288.00 (5명 외)]

\$88 ~ \$499 : 이광자(\$59/\$100), 이인순(\$65/\$100), 이옥순(\$66/\$100), 우화연(\$67/\$88), *아틀란타 지회(\$400) *\$500~\$999 : 정문자(\$60/\$500)

이화장학재단 장학금 모금운동 (\$88 for Ewha Campaign) 기부자 명단 (8. 7. 2011)

Boston Chapter (New England) [total: \$976.00 (10명)]

\$88 ~ \$499 : 강경희(\$56/\$100), 박기춘(\$58/\$100), 이충자(\$62/\$88), 김종례(\$64/\$88), 남훈선(\$67/\$100), 박정연(\$67/\$100), 김문령(\$69/\$100), 박순혜(\$69/\$100), 이경혜(\$69/\$100), 민혜식(\$73/\$200)

Chicago Chapter [Total: \$4,092.00 (23명)]

\$88 ~ \$499 : 조봉원(\$53/\$100), 김정희(\$56/\$88), 정영숙(\$59/\$100), 김영원(\$62/\$88), 이경자(\$62/\$100), 박숙(\$63/\$100), 원문희(\$63/\$88), 김영선(\$64/\$100), 신희정(\$66/\$200), 이숙자(\$67/\$100), 이순영(\$67/\$100), 임수진(\$67/\$100), 김경희(\$68/\$88), 김승주(\$69/\$88), 이설희(\$69/\$88), 공설영(\$70/\$100), 김연숙(\$70/\$88), 허귀숙(\$70/\$88), 변숙자(\$71/\$200), 박영희(\$74/\$88)
\$500 ~ \$999 : 이영애(\$66/\$500), 유재영(\$67/\$500)
\$1,000 ~ \$4,999 : 손세숙(\$66/\$1,000)

Dallas Chapter [Total: \$488.00 (3명)]

\$88 ~ \$499 : 박정원(\$49/\$200), 이주연(\$53/\$88), 이혜정(\$76/\$200)

Hawaii Chapter [Total: \$3,700.00 (21명)]

\$88 ~ \$499 : 정명자(\$51/\$100), 고복남(\$54/\$200), 최영진(\$58/\$100), 허원숙(\$58/\$100), 김국자(\$59/\$200), 이태미(\$61/\$100), 지길순(\$62/\$100), 이화자(\$63/\$100), 손혜숙(\$67/\$100), 오숙혜(\$67/\$100), 전은자(\$67/\$200), 노인자(\$69/\$100), 민호규(\$74/\$100), 신유철(\$74/\$100), 유진(\$74/\$100), 변희진(\$75/\$100), 이홍자(\$76/\$100), 박혜성(\$85/\$100), 정미정(\$85/\$100)
\$500 ~ \$999 : 유경옥(\$57/\$500) *\$1,000 ~ \$4,999 : 옥성숙(\$50/\$1,000)

Houston Chapter [Total: \$200.00 (2명)]

\$88 ~ \$499: 장기숙(\$54/\$100), 정규선(\$67/\$100)

Los Angeles Chapter (남가주) [total: \$14,834.00 (94명)]

\$88 ~ \$499 : 서동호(\$52/\$100), 이명숙(\$52/\$100), 이시한(\$52/\$100), 김애선(\$53/\$150), 임순희(\$55/\$200), 홍연숙(\$55/4100), 김경자(\$56/\$100), 김순성(\$56/\$100), 김영순(\$56/\$100), 김정은(\$56/\$100), 민경남(\$56/\$100), 박희경(\$56/\$100), 원순주(\$56/\$100), 유경선(\$56/\$100), 이성숙(\$56/\$100), 이정희(\$56/\$100), 이혜리(\$56/\$100), 임영실(\$56/\$100), 정태숙(\$56/\$100), 최현수(\$56/\$100), 최화자(\$56/\$100), 허명숙(\$56/\$100), 윤연순(\$57/\$100), 이재경(\$57/\$100), 임영실(\$57/\$100), 권국옥(\$58/\$100), 김병화(\$58/\$100), 김연(\$58/\$100), 김은숙(\$58/\$100), 박성애(\$58/\$100), 박안자(\$58/\$100), 송명(\$58/\$100), 송오목(\$58/\$100), 안영란(\$58/\$100), 윤정애(\$58/\$100), 이기성(\$58/\$100), 이영희(\$58/\$100), 이인원(\$58/\$100), 임경애(\$58/\$100), 정애숙(\$58/\$100), 정영희(\$58/\$100), 주정선(\$58/\$100), 최운봉(\$58/\$100), 최인금(\$58/\$100), 홍순희(\$58/\$100), 홍인숙(\$58/\$100), 신호국(\$60/\$88), 최정원(\$61/\$100), 김차남(\$62/\$300), 이정란(\$65/\$200), 김영희(\$66/\$88), 김정순(\$66/\$200), 민용기(\$66/\$88), 안영혜(\$66/\$100), 윤봉진(\$66/\$300), 이정숙(\$66/\$300), 이혜옥A(\$66/\$88), 이혜옥B(\$66/\$300), 김동순(\$67/\$200), 김숙(\$67/\$200), 김영례(\$67/\$88), 도경애(\$67/\$300), 박경옥(\$67/\$188), 송현숙(\$67/\$100), 송혜성(\$67/\$300), 신중애(\$67/\$100), 이상민(\$67/\$100), 전신영(\$67/\$100), 전용선(\$67/\$200), 천명희(\$67/\$100), 김광숙(\$68/\$100), 김명숙(\$68/\$88), 김애권(\$68/\$88), 김정신(\$68/\$88), 윤미훈(\$68/\$88), 이선숙(\$68/\$88), 이수인(\$68/\$100), 이정애(\$68/\$88), 이종선(\$68/\$88), 정은옥(\$68/\$100), 최영희(\$68/\$100), 한금숙(\$68/\$100), 한숙희(\$68/\$100), 권영애(\$69/\$88), 김내한(\$69/\$88), 김용화(\$69/\$88), 박경주(\$70/\$100), 김금규(\$72/\$88), 장난희(\$74/\$100), 이영심(\$76/\$100), 윤혜섭(\$79/\$88)
\$1,000 ~ \$4,999 : 한영숙(\$56/\$2,100), 김영혜(\$58/\$1,000), 이정애(\$67/\$1,000)

Michigan Chapter [total: \$952.00 (9명)]

\$88 ~ \$499 : 신영자(\$62/\$100), 하화자(\$63/\$88), 김종업(\$64/\$88), 이혜경(\$65/\$188), 차승순(\$66/\$100), 박은자(\$67/\$100), 박혜현(\$67/\$100), 송혜숙(\$67/\$100), 이영혜(\$67/\$88)

Greater New York Chapter [total: \$24,712.88 (73명)]

\$88 ~ \$499 : 한명숙(\$46/\$100), 김옥석(\$53/\$100), 성희모(\$53/\$88), 오진환(\$54/\$88), 김용희(\$55/\$88), 임정애(\$56/\$100), 이선덕(\$57/\$88), 조봉옥(\$58/\$100), 김자현(\$58/\$100), 남옥희(\$59/\$100), 이완실(\$63/\$100), 김증자(\$64/\$100), 김근애(\$65/\$88), 김대봉(\$65/\$88), 김연규(\$65/\$88), 백영숙(\$65/\$88), 손인경(\$65/\$88), 송경순(\$65/\$88), 양경숙(\$65/\$88), 원건숙(\$65/\$88), 이금화(\$65/\$88), 임옥자(\$65/\$88), 전경옥(\$65/\$88), 정원(\$65/\$88), 기화숙(\$66/\$100), 김광은(\$66/\$100), 김안자(\$66/\$200), 김애경(\$66/\$300), 김애리(\$66/\$200), 김원경(\$66/\$100), 김춘영(\$66/\$100), 김희자(\$66/\$100), 박경원(\$66/\$100), 박선희(\$66/\$100), 박혜자(\$66/\$100), 손미(\$66/\$100), 심재경(\$66/\$100), 유기자(\$66/\$100), 이영희(\$66/\$88), 이종례(\$66/\$100), 정진영(\$66/\$100), 김선자(\$67/\$100), 김선화(\$67/\$100), 김소희(\$67/\$100), 김원경(\$67/\$100), 변희봉(\$67/\$88), 서정화(\$67/\$100), 어혜숙(\$67/\$300), 조용남(\$67/\$200), 장옥혜(\$67/\$100), 이상은(\$69/\$100), 전명혜(\$69/\$100), 최황숙(\$71/\$88), 김동숙(\$72/\$100), 김신애(\$74/\$150), 고혜경(\$75/\$100), 한영국(\$75/\$88), 안혜숙(\$76/\$100), 이승아(\$76/\$88), 박미희(\$77/\$88), 이경하(\$77/\$100)
\$500 ~ \$999 : 이귀자(\$61/\$888), 이영순(\$66/\$500), 이채임(\$66/\$500), 오선숙(\$67/\$500), 이명신(\$67/\$500), 김원용(\$72/\$500)
\$1000 ~ \$4999 : 이보영(\$52/\$1,000), 경순표(\$66/\$1,000), 신위태(\$66/\$1,850), 이정화(\$66/\$1,000), 최성남(\$66/\$1,000) *\$5,000이상 : 김수자(\$61/\$8,888.88)

이화장학재단 장학금 모금운동 (\$88 for Ewha Campaign) 기부자 명단 (8. 7 2011)

🌸 Ohio Chapter [total: \$22,176.88 (11명)]

\$88 ~ \$499 : 김영희(67/\$100), 양인석(68/\$88), 이경숙(68/\$100) * \$500 ~ \$999 : 민병현(58/\$500), 박윤희(64/\$500), 김현진(76/\$500)
 \$1,000 ~ \$4,999 : 김진경(75/\$1,000), 여경희(76/\$1,000)
 \$5,000이상 : 한순남(52/\$5,000), 김정진(66/\$8,888.88), 김영진(67/\$5,000)

🌸 Philadelphia Chapter [total: \$1,200.00 (4명)]

\$88 ~ \$499 : 장영완(54/\$200), 이병주(64/\$200), 남광희(69/\$300) * \$500 ~ \$999 : 박임자(66/\$500)

🌸 San Diego Chapter [total: \$2,016.00 (11명 외)]

\$88 ~ \$499 : 황수련(54/\$88), 금동희(57/\$100), 김미라(60/\$400), 강재경(63/\$88), 이미경(67/\$100), 정화정(67/\$100), 조효은(67/\$88), 최인옥(67/\$88), 백인경(71/\$264), 오재영(72/\$100), 이영신(76/\$100)
 \$500 ~ \$999 : 샌디에고 지회(\$500)

🌸 San Francisco Chapter [total: \$3,792.00 (14명)]

\$88 ~ \$499 : 김미란(44/\$100), 박영옥(55/\$88), 이재희(57/\$100), 정순정(65/\$88), 김영신(66/\$88), 서동선(66/\$88), 양승욱(66/\$88), 오정숙(66/\$88), 정미록(66/\$88), 임형란(67/\$88), 조현호(67/\$88), 김정주(76/\$300)
 \$500 ~ \$999 : 김신향(67/\$500) * \$1,000 - \$4,999 : 박기숙(67/\$2,000)

🌸 Seattle Chapter [total: \$1,668.00 (7명 외)]

\$88 ~ \$499 : 홍정혜(46/\$88), 김영희(58/\$100), 박영자(61/\$100), 최혜경(64/\$100), 권영희(65/\$100), 이윤영(67/\$200), 공혜련(73/\$100)
 \$500~\$999 : 시애틀지회(\$880)

🌸 Toronto Chapter [total: \$1,544.00 (17명)]

\$88 ~ \$499 : 전명자(56/\$88), 김혜기(57/\$100), 남영순(58/\$88), 김내원(62/\$88), 최명자(62/\$88), 고덕수(63/\$88), 구영모(63/\$88), 국숙자(63/\$100), 김양자(63/\$88), 손명심(66/\$88), 이상숙(67/\$100), 조미래(68/\$88), 김하숙(74/\$100), 노명호(74/\$88), 오혜진(74/\$88), 최인숙(74/\$88), 이혜근(79/\$88)

🌸 Vancouver Chapter [total: \$1,700.00 (8명)]

\$88 ~ \$499 : 이옥재(55/\$100), 김문혜(58/\$100), 정명자(58/\$100), 이화자(63/\$100), 승원희(73/\$100), 문영신(74/\$100), 전영금(76/\$100)
 \$1000-\$4,999 : 이미경(76/\$1,000)

🌸 Washington D.C. Chapter [total: \$6,570.00 (45명)]

\$88 ~ \$499 : 윤순자(37/\$100), 최인숙(53/\$100), 이명숙(55/\$100), 김영주(57/\$200), 이정렬(57/\$200), 이혜순(57/\$200), 최상미(58/\$100), 박혜자(59/\$88), 배인숙(59/\$100), 신금혜(59/\$100), 이영옥(59/\$88), 이혜자(59/\$200), 조민숙(59/\$88), 조영숙(59/\$88), 김영희(60/\$88), 김지현(60/\$88), 김태정(60/\$88), 박혜선(60/\$100), 서정자(60/\$100), 신경숙(60/\$100), 오영자(60/\$88), 윤정자(60/\$88), 이규정(60/\$88), 이수경(60/\$88), 무명(62/\$250), 신선숙(62/\$88), 은성자(62/\$100), 김영숙(65/\$100), 윤성숙(65/\$88), 김정희(67/\$100), 김희한(67/\$200), 안지수(67/\$100), 염준옥(67/\$300), 이기남(67/\$100), 이선호(67/\$100), 이순덕(67/\$100), 이영옥(67/\$300), 이영주(67/\$100), 최아영(67/\$88), 맹옥열(68/\$100), 이명혜(70/\$100), 김성희(72/\$100), 정영주(73/\$88)

\$500 ~ 999: 장경희(66/\$500)

\$1,000 ~ \$4,999 : 김광자(62/\$1,000)

🌸 기타 지역 [total: \$11,776.00 (10명)]

\$88 ~ \$499 : 김현수(46/MO/\$100), 박순영(56/FL/\$300), 최경선(57/MO/\$88), 김영희(66/TN/\$300), 길희경(66/WV/\$88), 홍선심(66/한국/\$400), 황영자(66/SD/\$100), 안순신(67/AL/\$100), 정운교(67/AZ/\$300)

\$10,000이상 : 주영희(63/한국/\$10,000)

🌸 Special

이화 세자매 [\$5,000.00 (3명)] : 김애순(59/한국), 김선애(66/NY), 김선주(71/Boston)

이화 친구 [\$1,000.00 (5명)] : 김영수(\$200), Erica 박(\$100), 이덕식(\$100), 함동호(\$100), OMNOVA Solution

Reference - \$1,111(\$1,000) - 약정(내신 금액)

제 4차 북미주 동창회 총회 기부자 명단 (8/12/11)

● 후원 이사회비

(56)김정희, 한영숙, (61)김수자, (63)손종임, (66)박임자, 이정화, 이채임

● 특별 찬조금

\$8,000 : (66)김정진

\$3,300 : (60)오경자

\$2,000 : (66)신위태 \$1,500 이상 : (66)우경숙, (67)김영진

\$1,000 : (66)이선희, (70)신공범, (76)여경희, 남가주 이화동창 합창단 후원회와 합창단 일동

\$900 : (56)한영숙 \$750 : (64)김은애

\$500 : (52)한순남, (54)박현숙, (55)곽노현, (56)한영숙, (58)민병현, (59)송지선, 양선자, (61)조강원
 (64)박윤희, (65)윤진송, (66)김영신, 김유옥, (67)김영희, (75)김재희, 김진경, (76)김현진

\$300 : (56)김정희, (61)김수자, 이귀자, (62)김광자, (67)이숙자, (68)양인석

\$250 : (59)이영애, (65)윤정분

\$100 : (61)이학자, (64)최혜경, (65)김영주, (66)김서영, 윤봉진, 이옥순, (67)유재영, 이윤영, (73)이상은, 임종화, (76)오순희

● 총동창회 및 북미주 지회 동창회 후원금

한국 총동창회 (\$12,500)

북미주 지회 : 샌프란시스코 (\$500), 남가주 (\$3,000), 워싱턴디시 (\$700), 밴쿠버 (\$500), 애틀란타 (\$200), 시애틀 (\$500), 미시간 (\$500), 필라델피아 (\$515), 뉴욕 (\$3,000), 보스턴 (\$1,500)

● 뉴욕 목요일 모임 멤버

음악회 Slide Show 기부자 (\$1,400)

\$200 : 박이자(49), 이보영(52), 이정화(66), 최성남(66), 김옥석(53)

\$100 : 한명숙(46), 김옥석(53), 이귀자(61), 박기원(62), 전명자(62), 전명혜(69)

● 이화 친구(non-동문)

\$5,000: National Philanthropic Trust

\$1,500 : Korea Times(Free Advertisement worth of \$1,500-\$2,000)

\$1,000: Charak Center for Health & Wellness / Deana El-Mallawany;Analogue Studio / Rakesh Ranjan,M.D. / Chen,Chun Fu / 이재훈,M.D. / Drs. Hill & Thomas / Eun and Jeff White / 무명

\$550 : Erie Chinese Jounal(Free Advertisement worth of \$550)

\$500 : Ameer Kim El-Mallawany / Nader Kim El-Mallawany / Summa Health System / Morgan Stanley: Mr. & Mrs. Fareed Siddiq / 무명

\$400 : Dr. & Mrs. Mohamed Hamid

\$300 : Lynn & Jennifer Jang / Sasa Matsu Restaurant (plus \$300 worth Gift certificate) / Luke Suh, Attorney at Law

\$200 : Margaret W. Wong / Asian Service in Action / Mohamed Bidar, Attorney at Law

\$150 : 권공영 \$140 : 이명희 \$100: 남근우, 문종대, 우종규, 이광신, 최석곤, 인명숙, 이상준, 김성환 \$ 50: 송선희, 신현숙

● 북미주 동창회 2년 회비

(46)한영숙, (52)한순남, (53)김옥석, (56)한영숙, (57)최선량, (58)남영순, (59)최의영, (61)김수자, (61)이귀자, (62)홍춘혜, (65)김영주, 박광중, 이인순, (66)경순표, 김영희, 김정진, 신희정, 이영순, 이영애, 이채임 (67)유재영, 이순덕, (68) 이경숙, (69)전명혜, (70)신공범, (73)김혜선, (76)김현진, 여경희, (77)박미희

● 북미주 동창회 1년 회비

(52)이정화, (57)노명숙, (61)이정강, (62)김광자, 박문순, 신선숙, (63)김경애, 김혜경,(63)손종임, 이군자, (64)이병주, (65)김근애, 김대봉, 김대숙, 김미봉, 김연규, 백영숙, 손인경, 송경순, 양경숙, 우인숙, 원건숙, 이금화, 임옥자, 전경옥, 전금옥, 정 원, (66)김유옥, 박임자, 손세숙, 유기자, 이옥순, 이정화, 차승순, (67)박혜현, (70)허귀숙, (72)이정선, (75)변희진, (76)김순희

2010-2011 년 이화여고 동창회 조직

이화여고 총동창회 실행 임원 명단

회장 : 송보경 (1963)

부회장 : 고혜령 (1964), 이자형(1966), 박현순(1969), 이은주(1970)

총무 : 유혜영 (1974)
부총무 : 전정연 (1976)

회계 : 정점순 (1978)
부회계 : 강경화 (1979)

서기 : 나채선 (1978)
부서기 : 박진영 (1980)

행사부장 : 박영준 (1972)

문화홍보부장 : 최혜정 (1978)

출판부장 : 박희자 (1972)

감사 : 김귀자 (1959), 김동욱 (1964)

동창회 간사 : 박지원(2000)

특별사업위원장 : 김경숙 (1969)

이화여고동창회100주년기념사업회 : 회장 고혜령

전시회 팀장 : 고혜령 / 음악회 팀장 : 박현순 / 특별바자팀장 : 김경숙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실행 임원 명단

회장 : 김정진(1966)

실행 부회장 : 김영진(1967)

총무 : 여경희(1976)

회계 : 김현진(1976)

서기 : 김영희(1967)

고문 : 한순남(1952)

역대 회장 : 한영숙(1956), 김광자(1962), 김수자(1961)

총회 준비 위원장 : 신공범(1970)

만찬 준비 위원장 : 김재희(1975)

특별 위원장 : 김진경(1975)

Webmaster: 이재현(1972)

당연직 부회장 (각 지부 회장)

- | | |
|-------------------------|-----------------------------|
| ■ Atlanta, GA 이인순(65) | ■ Philadelphia, PA 김혜경(63) |
| ■ Boston, MA 남훈선(67) | ■ San Diego, CA 백인경(73) |
| ■ Chicago, IL 박영희(74) | ■ San Francisco, CA 최길자(60) |
| ■ Cleveland, OH 김영진(67) | ■ Seattle, WA 이윤영(67) |
| ■ Dallas, TX 이주연(61) | ■ Washington, DC 신경숙(60) |
| ■ Honolulu, HI 신미정(85) | ■ Calgary, Canada 나경애(69) |
| ■ L.A. CA 김광숙(68) | ■ Toronto, Canada 유은경(75) |
| ■ Detroit, MI 이혜경(65) | ■ Vancouver, Canada 이미경(76) |
| ■ New York, NY 이정화(6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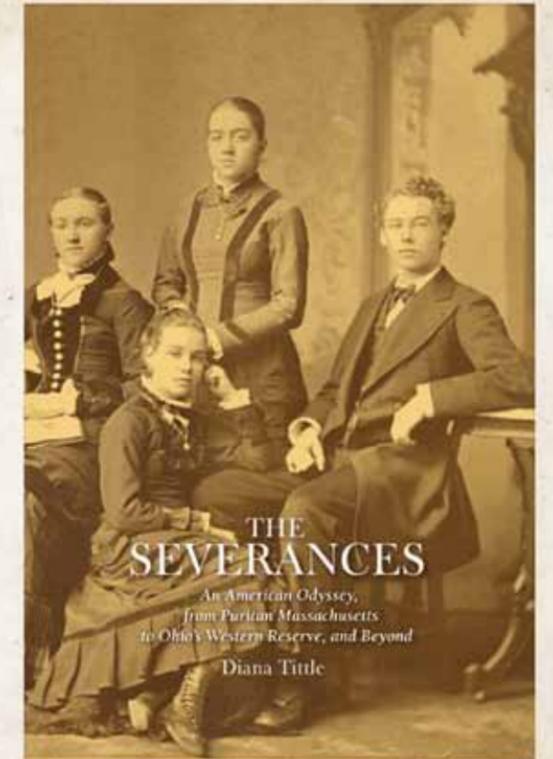
THANK YOU TO OUR SPONSORS

 **THE KOREA TIMES**

3720 W. Devon Ave. Lincolnwood, IL 60712
Tel. 847-626-0388 / Fax. 847-626-0383



Eun and Jeff White



LOUISE FRANKE
OF THE SEVERANCE FAMILY



